

환경과 편의를 생각한 업사이클링 쓰레기통





'새활용' 또는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새로운 디자인과 가치를 부여하여 기존의 제품보다 품질이나 가치가 더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 쓰레기통에는 이처럼 잔여 음료들이 묻어있곤 했고 악취와 끈적거림으로 인해 고객은 물론이고 직원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이런 화분 모종 받침대를 전혀 다른 용도인 잔여음료컵 수거함으로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총 13개역 32대까지 확대 설치하며 성공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